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05~08월 주말·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요일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공연접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속 한미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3 MARCH 2015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March

2015년 3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3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March,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5년 3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제886회

박수정 전통춤 **流香(유향)**

- 우리 춤, 향기가 되어 흐르다

Park Sujeong's traditional dance 'Floating Fragrance'
- Korean traditional dance, floating in the air like a fragrance

03. 07.



제887회

명창 박정욱의 '서도소리, 배뱅이 굿'

Master singer Park Jeonguk's 'Seodo Sori, Baebangyi Gut'

03. 14.



제888회

'꽃밭에서 놀자'

'One Nice Day at a Flower Garden'

03. 21.



제889회

최정윤의 세번째 춤 판

'어람풍경(御覽風景)'

Choi Jeongyun's third dance performance 'Eorampunggyeong'

03. 28.

※ 공연일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 공연료는 무료입니다. Free Admission



우리민속 03 MARCH 2015
한미당



박수정 전통춤 流香(유향) - 우리 춤, 향기가 되어 흐르다

Park Sujeong's Traditional Dance 'Floating Fragrance' - Korean Traditional Dance, Floating like a Fragrance

2015. 03. 07.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SSU Dance 무용단만의 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느낌으로 공연을 선보인다. 본 무대에서 '유향(流香) - 우리 춤, 향기가 되어 흐르다.'의 제목으로 아름다운 향이 가득한 무대를 준비하였다.

첫 무대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를 선보인다.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기리는 뜻의 춤으로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며, 발 디딤이 다양하고 현란하면서도 조급하지 않은 절제미를 보여줄 것이다. 이어서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과 향발이라는 작은 악기를 들고 추는 향발무, 남녀의 정감을 춤사위로 표현한 한량과 여인, 자유롭게 춤을 추는 입춤, 어깨에 장구를 메고 추는 장구춤, 교방에서 전해져 내려온 교방굿거리춤, 마지막으로 꽃부채를 양손에 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구사하며 아름다움을 표현한 부채춤으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This performance is presented by the SSU Dance Company based upon a new interpretation of dance and under the title of 'Floating Fragrance - Korean traditional dance, floating like a fragrance'. The show is kicked off with 'Taepyeongmu',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92. It is a dance performed in pursuit of peace and prosperity of the country, which comprises subtle and elegant movements and expresses the understated beauty. This is followed by 'Salpurichum',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97, 'Hyangbalmu' performed with a small musical instrument called Hyangbal, and 'A Hallyang and a Lady' featuring feelings between a man and a woman. 'Ipchum' - a freestyle dance, 'Jangguchum' performed by a dancer with a janggu on his/her shoulder, and 'Gyobanggutgeorichum' whose origin is in Gyobang (the house of professional female entertainers) will also give diversity to the show. 'Buchaeuchum' to be performed at the very end of the show expresses the beauty of fan dance as the fans are being folded and unfolded before the audience's eyes.

공연순서 PROGRAM

- 01 태평무 Taepyeongmu
- 02 살풀이춤 Salpurichum
- 03 향발무 Hyangbalmu
- 04 한량과 여인 A Hallyang and a Lady
- 05 입춤 Ipchum
- 06 장구춤 Jangguchum
- 07 교방굿거리춤 Gyobanggutgeorichum
- 08 부채춤 Buchaeuchum



대표 박수정(서울시무용단 단원)
출연 신동엽, 김유진, 김지연, 문희선, 김경희,
백재경, 유지혜, 이성영, 김은비, 이태준

명창 박정욱의 '서도소리, 배뱅이굿'

Master Singer Park Jeonguk's 'Seodo Sori, Baebaengi Gut'

2015. 03. 14.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와 배뱅이굿을 선보인다. 서도 소리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전통 성악곡을 말하는데 평안도지역의 수심가토리(염음수심가, 자진아리, 안주애원성 등)와, 황해도지역의 산염불토리(긴난봉가, 자진난봉가, 산염불 등)의 소리가 서도소리의 가장 대표적이다. 앉아서 부르는 좌창과 서서 부르는 입창, 그리고 송서, 시창, 선소리산타령, 민요로 나누어 부른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세부 기·예능으로 수심가, 관산용마, 배뱅이굿이 있다.

배뱅이굿은 흔히 남도의 판소리와 비교되는 음악으로, 한 사람의 소리꾼이 장구 반주에 맞춰 배뱅이 이야기를 서도의 기본 음악 어법을 바탕으로 민요와 무가, 재담 등을 섞어 해학적으로 엮어낸다. 이번 공연을 통해 쉽게 접하기 힘든 서도소리와, 배뱅이굿을 만나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The 'Seodo Sori, Baebaengi Gut',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9 is presented during the show. Seodo Sori refers to traditional songs of Pyeongando and Hwanghaedo, mostly represented by Susingatori of Pyeongando (Yeoggeum Susimga, Jajinari, Anjuaewonseong, etc.) and Sanyeombutori of Hwanghaedo (Gin Nanbongga, Jajin Nanbongga, Sanyeombul, etc.). It consists of Jwachang (sedentary singing style), Ipchang (stand-up singing style), Songseo, Sichang (melodic Sino-Korean poetry), Seonsori Taryeong, and folk songs. Among them are Susimga, Gwansanyungma and Baebaengi Gut currently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Baebaengi Gut often compared to Namdo Pansori is a music genre in which a singer narrates a story of Baebaengi to the accompaniment of a janggu in a humorous way, in addition to folk song singing and joke telling. The audience will be offered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Seodo Sori and Baebaengi Gut they have hardly been able to listen to.

공연순서 PROGRAM

- 01 해주산염불 Haejusanyeombul
- 02 안주애원성(물레타령)·둥둥타령·자진아리
Anjuaewonseong (Mulletaryeong, Korean traditional ballad), Dungdungtaryeong, Jajinari
- 03 긴 난봉가. 잦은 난봉가. 사설 난봉가 Gin Nanbongga, Jajeun Nanbongga, Saseol Nanbongga
- 04 느리개타령. 굼벵이타령. 연평도 난봉가 Neurigae Taryeong, Gumbe Taryeong, Yeonpyeongdo Nanbongga
- 05 명창 박정욱의 "배뱅이 굿" Master Singer Park Jeonguk's 'Baebaengi Gut'
- 06 연평도사공 Yeonpyeongdo Sagong (Boatman)
- 07 뱃노래 잦은 뱃노래 Baennorae (Boatman's song, Jajeun Baennorae)



대표 박정욱(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이수자)

출연 소리 - 강정민, 강정화, 김금숙, 김영빈, 김윤식, 김종욱, 김창식, 박희순, 송지우, 양명훈, 이민경, 이순복, 이연정, 이우근, 임영미, 전군자, 전옥희, 정명희, 채지숙, 음악(양상불협) - 박현수, 신비성, 김명원, 신정민, 노성덕

‘꽃밭에서 놀자’

'One Nice Day at a Flower Garden'

2015. 03. 21.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 연희를 노리꽃만의 색깔로 재구성 하여 악, 가, 무를 토대로 우리들 인생의 이야기를 표현한다. 이 이야기는 특징인이 아닌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다.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손이 번성하고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주제로 전통연희무대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지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각 세대별로 애환을 달래주며 축원 덕담으로 시작을 알리는 '노리꽃 비나리'이다. 이어서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을 버나 놀이로 재미있게 풀어나간 '엎치락뒤치락', 우리네 인생을 국악연주로 표현한 '희노애락', 열 달 동안 고생 끝에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어머니와 생명의 탄생 과정을 노래한 '꽃이 피려면', 모두 소중한 꽃으로 태어나 그 삶을 모두 함께 살아감을 '꽃밭에서 놀자'로 마무리 하여 우리의 인생사를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A traditional play is newly interpreted by Norikkot, who narrates our life story through music, song and dance. This is not anyone else's story but yours. This traditional play shows a life full of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telling the audience about you being born, growing, falling in love, starting a family, having children and dying.

The play starts with 'Binari by Norikkot', whose lyrics are well-wishing remarks for each generation and thereby win sympathy from the audience. This is followed by 'Turn over and over (Beonanori)' that shows the process of finding the right person for one,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performed to the tune of Gugak, and 'For a Flower to Blossom' - a song about the process of one's birth as well as a mother who has to wait for 10 months to give birth to a child. The play ends with 'One Nice Day at a Flower Garden' in which a person is born and lives together with others like the flowers in the garden.

공연순서 PROGRAM

- 01 노리꽃 비나리 Binari by Norikkot
- 02 엎치락 뒤치락(버나놀이) Turn over and over(Beonanori)
- 03 희노애락(우리네 인생-기악곡)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Our life - instrumental piece)
- 04 꽃이 피려면(탄생가-창작 판소리) For a flower to blossom (Birth song - Creative Pansori)
- 05 꽃밭에서 놀자(개인놀이 + 판굿) One nice day at a flower garden (Individual performance + Pangut)



대표 오노을(여성연희단 노리꽃 대표)

출연 김소라, 방아영, 황혜정, 임이랑,
유리다, 김정운, 이가은

최정윤의 세번째 춤 판 '어람풍경(御覽風景)'

Choi Jeongyun's third dance performance 'Eorampunggyeong'

2015. 03. 28.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작품은 한국무용가 최정윤의 세 번째 우리춤 판으로 우리 춤의 단아하고 신명나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이다.

첫 무대는 전통 춤의 기본을 바탕으로 즉흥성이 강조되어 짜인 춤이다. 따뜻한 봄날의 제비들같이 노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표현한 연흥무를 선보인다. 이어서 경기민요 노랫가락, 창부 타령에 어우러져 다양한 기교와 화려함이 돋보이는 진유림 명무로부터 내려온 장구춤, 시리도록 슬픈 느낌과 절제된 동작에서 베어 나오는 우리의 한을 끌어 올리는 이매방류 살풀이 춤, 광개토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판굿과 더불어 허튼법고춤까지 우리 춤의 아름답고 다양한 멋의 풍류를 선사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This is the third dance performance by Korean dancer Choi Jeongyun, comprising elegant and exciting Korean traditional dances. The first dance bases itself on traditional dance techniques, putting emphasis on spontaneity. Yeonheungmu is a dance that features a beautiful lady rambling like a swallow in spring days. This is followed by Jangguchum passed down from master dancer Jin Yurim. Jangguchum is performed to the tune of Gyeonggi folk song and Changbu Taryeong, whose various techniques and gorgeous movements stand out. What follows is Yi Maebang type of Salpurichum that touches Koreans' han (deep sorrow) with sad sentiments and understated movements. Pangut by Gwanggaeto Samulnori along with Heoteunbeobgochum will also show the beauty of Korean dance and appreciation of the arts.

공연순서 PROGRAM

- 01 연흥무 Yeonheungmu
- 02 장구춤 Jangguchum
- 03 살풀이 춤 Salpurichum
- 04 풍물놀이판굿 Pungmulnoreumpangut
- 05 허튼법고 Heoteunbeobgo



대표 최정윤(춤예인 어람풍경 대표)

예술감독 진유림 조연출 백수연

출연 최정윤, 백수연, 하명초, 유지숙, 이관웅, 광개토 사물놀이

